



미국 성장률: 3분기 3.4%로 예상 상회, 내수도 가속해 인상 논거 유지

2026. 10. 29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핵심 요약

- 2026년 3분기 미국 실질 GDP는 전기비 연율 3.4%로 시장 예상 3.2%를 상회했고 직전 분기 2.2%에서 1.2%포인트 가속했다.
- 재고 · 무역 · 정부를 뺀 실질 민간국내총매출이 4.6%에서 4.9%로 함께 가속해 헤드라인 가속이 겉보기 숫자가 아니라 내수 실체에서 나온 결과로 확인됐다.
- 성장과 내수가 동시에 강하게 나온 만큼 이번 발표는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인상 논거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지 못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.

이번 지표는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(BEA)이 집계하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로, 재고와 무역을 포함한 경제 전체의 생산 활동을 측정한다. 직전 2분기 실질 GDP는 2.2%로 다소 둔화됐었는데, 당시에도 재고 · 무역을 걷어낸 민간국내총매출은 4.6%로 헤드라인보다 훨씬 강했다. 이번 3분기는 그 괴리가 좁혀질지가 관전 포인트였다.

결과는 헤드라인(3.4%)과 내수(4.9%)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올라가는 모양이다. 플러스 기여는 제조 · 도매 업종의 재고투자, 컴퓨터 · 주변기기 등 정보처리장비 투자, 의료 · 음식숙박 서비스와 처방약 등 소비지출, 그리고 2분기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정부지출이다. 반대로 끌어내린 요인은 순수출 하나뿐인데, 수입이 2분기보다 더 늘고 수출은 감소로 돌아선 영향이다.

다만 수입 증가의 대부분이 자동차 제외 자본재여서 이는 국내 설비투자 수요가 강하다는 뜻이지 경기가 식었다는 신호는 아니다. 즉 헤드라인과 내수의 1.5%포인트 격차는 경기 약화가 아니라 순수출이라는 단일 변수가 헤드라인을 눌러준 결과다.

통화당국은 9월 16일 만장일치로 25bp 인상한 뒤 10월 28일 10대2로 동결한 '인상 사이클 내 일시 정지' 국면에 있고, 현재 시장 전반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우세한 혼재 국면이다. 이 틀에서 보면 성장 · 내수가 동시에 강하다는 사실은 수요측 물가 하방을 제약해 추가 인상 논거를 강화하는 쪽이다.

반면 국내총구매 물가지수(3.0%),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(PCE, 2.1%), 근원 PCE(2.5%)가 모두 직전보다 큰 폭 둔화한 점은 인상 논거를 약화시키는 쪽이다. 다만 이 둔화 신호의 무게는 그대로 받기 어렵다. 헤드라인 PCE의 둔화폭이 근원 PCE 둔화폭의 세 배를 넘고, 근원(2.5%)이 헤드라인(2.1%)을 역전하는 구조여서 변동성이 큰 품목이 둔화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고, 내수가 4.9%로 강해 근원 물가의 추가 하락도 제약된다. 시장이 12월 9일 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90% 반영 중인 것도 이런 해석과 맞물려 있다.

다만 이번 발표는 전부 속보치이고, 가속을 이끈 재고투자와 수입은 향후 수정 위험이 가장 큰 항목이다. 11월 25일 잠정치에서 국내총소득(GDI)과 세후 기업이익이 함께 공표되는데, 재고 기여도가 하향 조정되는지, 전략비축유(SPR) 매각에 따른 정부지출 회계효과를 뺀 기저 재정수요가 얼마인지, GDP 물가디플레이터 실제치(예상 3.5%)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이번 가속의 지속성과 물가 함의를 더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.

표 1 과거와 비교 (같은 분류 최근 분석)

발행일	핵심 메시지
2026-10-29 (이번)	3분기 미국 실질 GDP는 연율 3.4%로 시장 예상 3.2%를 웃돌았고 직전 2.2%에서 크게 가속했다.
2026-08-26	2026년 2분기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(GDP) 2차 추정치는 연율 1.5%로 1분기 2.1%보다 둔화했지만, 정작 주목해야 할 대목은 헤드라인이 아니다. 재고와 순수출, 정부지출을 제외한 민간 내수 최종매출은 속보치 3.9%에서 4.2%로 오히려 상향됐고, 물가는 국내총구매 물가와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, 근원 PCE 물가 세 계열이 모두 위로 수정됐
2026-07-30	7월 30일 발표된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(GDP) 속보치는 전기 대비 연율 1.5% 증가로 1분기의 2.1%보다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. 다만 이 헤드라인 숫자만 보고 수요가 식었다고 판단하면 오독이다. 정부지출과 재고, 수출 쪽에서 감소 요인이 집중된 반면, 실제 민간 수요를 가리키는 지표인 민간 국내구매자 최종매출은 1.7%에서 3.9%로 오히려 두 배
2026-05-28	성장이 속보 대비 0.4pp 하향 수정(2.0% → 1.6%)되며 모멘텀 약화 신호를 보이는 가운데,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하고 기업이익이 급락(82% 하락)하며 수익성 악화 초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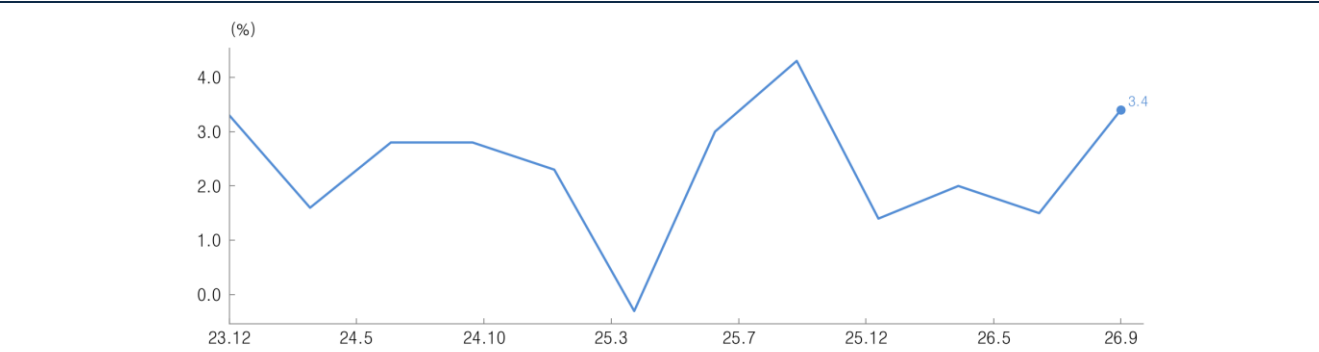
표 2 GDP 성장·물가지표 — 3분기 속보치 vs 2분기

지표	3분기(속보)	2분기	변화	맥락
실질 GDP(연율)	3.4%	2.2%	+1.2%p	분기 변화율로는 0.8%(복리 환산해 연율 3.4%)
현재가격(명목) GDP	5.6%	—	—	실질 GDP(3.4%)보다 2.2%p 높음, 가격 효과 포함
실질 민간국내최종매출	4.9%	4.6%	+0.3%p	소비+고정투자 합산, 헤드라인보다 1.5%p 높음
국내총구매 물가지수	3.0%	5.6%	-2.6%p	큰 폭 둔화
PCE 물가지수	2.1%	5.0%	-2.9%p	세 지표 중 둔화폭 최대
PCE 물가지수(식품 · 에너지 제외)	2.5%	3.3%	-0.8%p	둔화폭 가장 작아 헤드라인(2.1%)을 역전

표 3 핵심 수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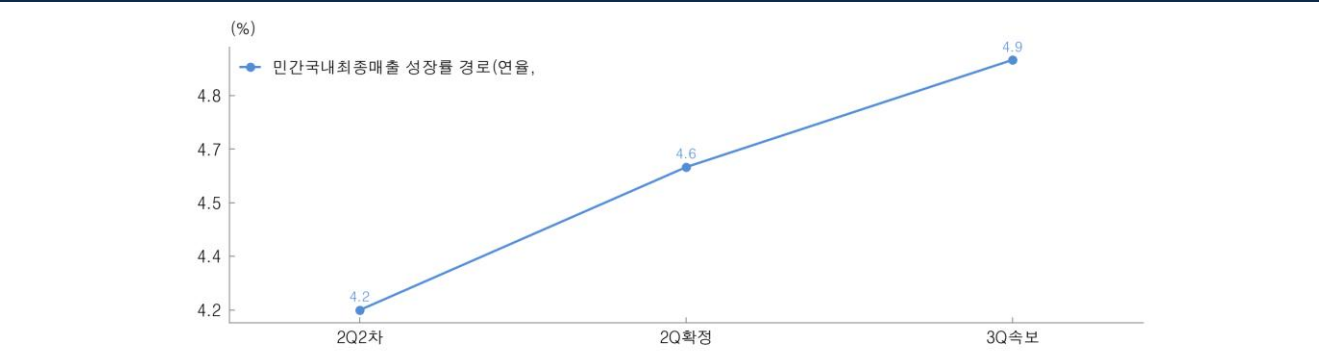
지표	값
실질GDP 연율(%)	3.4
국내총구매물가(%)	3.0

그림 1 미국 GDP 성장률(전기비 연율) 3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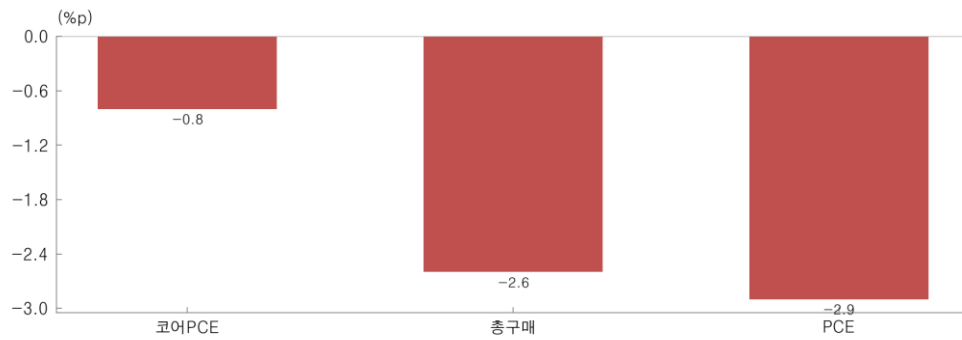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2 민간국내최종매출 성장률 경로(연율, 2Q→3Q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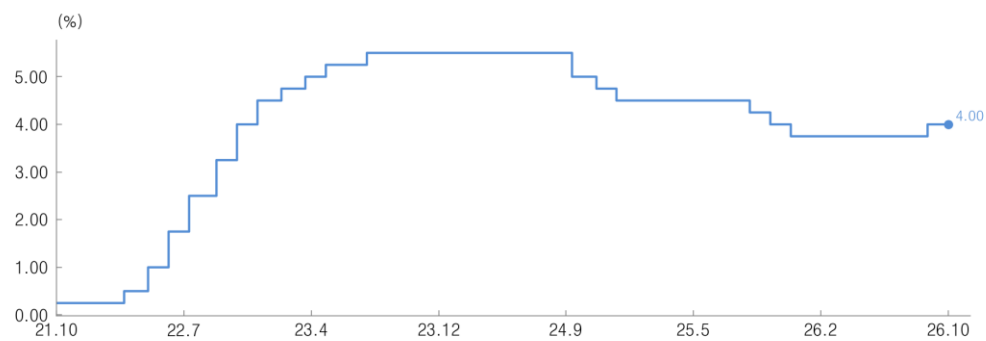
자료: 발표기관 보도자료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3 물가지표별 둔화폭 비교(2Q→3Q, 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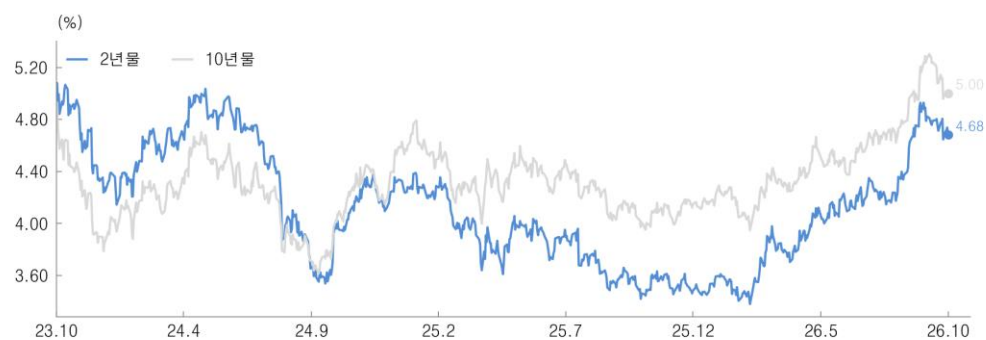
자료: 발표기관 보도자료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4 미국 정책금리(연방기금 목표 상단) 5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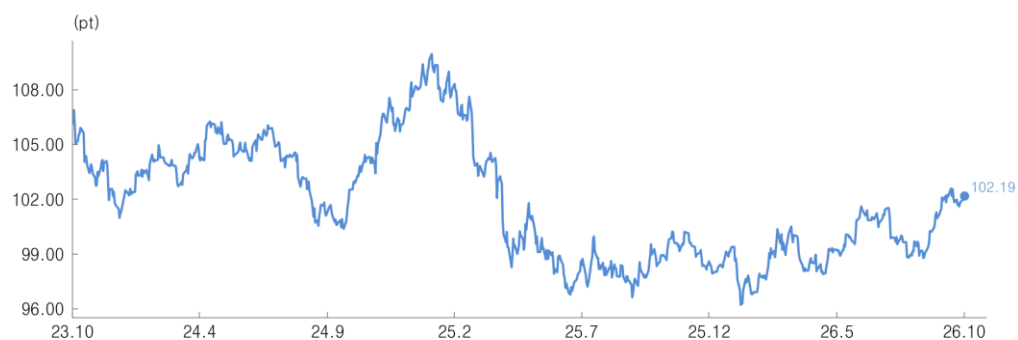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(2026-10-29 기준)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5 미국 국채금리(2년·10년) 3년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6 달러지수(DXY) 3년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